



류석호 위원
경기중재부
전 조선일보 경기취재본부장

위대한 자연 앞에 존재의 의미를 깨닫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디일까?

지난 6월 UN이 처음으로 개인건강, 가정, 직장 안정성, 정치적 자유, 정부 부패도 등 삶의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 '행복한 나라 톱10'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순이었다.

마침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12일 동안 아내와 함께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에스토니아, 러시아 등 북유럽 6개 나라를 다녀왔다. 이 중 4개국 UN이 꼽은 행복한 나라 10결. 이번 여행은 그것들 사실로 확인하고 절감한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스칸디나비아 4국(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을 둘러보고 가장 부러웠던 것은 깨끗한 자연환경과 그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노르웨이의 경우, 이 나라의 자연자원은 과연 세계 유일, 최고였다.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온 곳'이라는 뜻의 '피오르(fjord)'는 산골짜기 사이를 가득 채웠던 빙하가 움직이면서 깎아낸 U자형 골짜기에 바닷물이 들어와 구불구불 좁고 긴 지형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런 해안선을 이으면 약 1만 8,000km(최고 수심 1,308m)로 지구 둘레(약 4만 km)의 절반에 이른다.

고요한 호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빙하와 눈이 시리도록 푸르고 투명한 하늘과 바다, 숲한 자작나무 숲, 수많은 폭포와 강 등 빼어난 자연은 일대 파노라마였다. 다만, 계



▲ 노르웨이 플롬~미르달 구간의 산악철도 여행 중 간이역에서 아내와

절적인 한계로 한여름에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 밤에도 어두워지지 않는 백야 현상과 빨강 초록 하양 등 아름다운 빛을 내는 오로라(극광)를 감상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특히,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과는 달리, 스칸디나비아 4국은 화장실 수도꼭지에서 물을 그냥 받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수량과 깨끗한 수질을 자랑했다. 이들은 이 같은 자연환경을 심분 활용, 스키와 크로스컨트리, 요트와 보트를 즐기고, 트래킹과 자전거타기가 일상화돼 있었다.

연어와 청어 등 다양하고 풍부한 해산물을 즐기고, 각종 스포츠와 여가활동으로 비만인을 좀처럼 볼 수 없어 '똥똥한 사람은 여행객'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 건강에 나쁜 담배와 술에 대해 높은 세금을 매겨 노르웨이의 경우, 담배 한 갑의 가격이 우리의 10배에 달했다.

금발과 파란 눈, 큰 키의 북게르만계가 다수인 스칸디나비아인들(핀란드는 우랄알타이어계 핀족)은 세계에서 가

장 매력적인 체격조건을 갖췄다. 왕년 ‘은막의 여왕’ 그레타 가르보, 잉그리드 버그만 등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현재 북구 여성들은 하얀 피부보다 선탠 등으로 까무잡잡하게 태운 피부를 부와 미의 상징으로 여긴다고.

특권과 반칙, 부패와 비리가 통하지 않는 국민성과 투명한 사회제도는 단연 압권. 국왕이 손수 운전을 하고, 왕비가 직접 장보기를 하거나 왕세자비가 유모차를 끄는 것이 자연스럽고, 왕가의 결혼에서도 직업과 신분을 따지지 않는다. 스웨덴의 왕위 계승 1순위 빅토리아 공주가 운동강사 출신 시골 청년과 결혼했고, 노르웨이의 왕세자비는 마약전과자였다 지하조직 보스와의 사이에 아이를 낳은 전력이 있단다.

청정한 자연을 닮아 검소하고 실용을 중시하는 이들의 생활패턴은 환경산업과 의약, 디자인 등에서 세계적 명성을 자랑한다. 디자인의 경우, 장식을 최대한 배제하고, 상품의 기본에 충실하며, 견고한 특유의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의 가구, 패션, 액세서리, 식기, 인테리어 등은 최근 친환경 실용주의 경향과 맞물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스칸디나비아 4국은 비록 인구는 500만~900만명 정도지만,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4만4천~8만4천달러인 ‘강소국’의 전형이었다.

결국, 수려하고 청정한 자연자원과 잘 정비된 사회적 시스템, 정직하고 부지런한 국민성, 여유가 있으면서도 소박 검소한 생활,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봉사,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 건강한 생활태도 등이 경쟁력이 아닐까 한다.

덴마크는 자전거문화가 생활화된 대표적인 나라. 자전거 전용도로는 물론, 자전거 신호가 따로 설치돼 있으며, 자전거 뒤 비상등 설치가 의무화돼 있었다. 수도인 코펜하겐 시청은 ‘The city of bikes’라는 무인 자전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돈 약 4천원에 종일 무료로 자전거를 빌릴 수 있었다.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은 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물위의 도시로, ‘북구의 베네치아’란 별칭답게 세련된 감각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건축물이 인상적이었다.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답게 각종 옴부즈만제도가 활발한 이 나라는 이미 1628년에 길이 69m, 높이 52m의 호화전함 ‘바사호’를 건조할 정도였으니, 노벨상의 알프레드 노벨이 나오고, 전자통신 및 정보기술 분야의 강국이 된 건 당연하

다는 생각이다.

‘자일리톨껌’의 종가인 핀란드는 노키아 휴대전화, 유리 화병(花瓶)인 ‘사보이 베이스(savoy vase)’를 비롯한 친 환경 디자인 등으로 잘 알려진 나라. 사우나의 발상지답게 3명 중 1명 꼴로 집에 사우나 룸을 두고 깊이 달린 자자나무 가지로 팔 다리 어깨를 두드려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고.



▲ 핀란드 헬싱키의 러시아 정교회 우스펜스키 사원에서

스칸디나비아 4국의 작지만 강한 힘은 척박한 자연환경과 추운 기후, 적은 인구 등 열악한 조건을 오히려 기회로 바꾼 강인한 정신력과 불굴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가 아닐까. 오늘날 이케아(Ikea, 스웨덴), 레고(Lego, 덴마크), 노키아(Nokia, 핀란드)와 같은 세계적 기업을 일궈낸 그들의 저력은 오랜 역사의 산물인 것이다. 일찍이 8~11세기 뛰어난 항해술과 특유의 용맹함으로 유럽과 러시아까지 진출한 ‘스칸디나비아의 전사들’인 바이킹(Viking)의 후예들이 아니던가!

이런 그들도 지금 최고의 사회보장제도와 소수자에 대한 관용 등 호조건을 노려 밀려드는 외국인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자신들이 낸 세금을 잠식하는데 대한 불만과, 정체성 약화를 우려한 원주민들의 유색인종에 대한 공격 등 사회적인 갈등, 성장 동력 저하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

어쨌든 이번 북유럽 여행은 사람과 자연, 사회제도가 각자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으며, 상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 깨끗한 자연환경이야말로 다른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는 것을 절감한 값진 기회였다. 🇰🇪